



현행 수의학 교육의 현황과 문제점



박 근 식

대한수의사회 부회장

1. 머리말

교육은 백년대계라고 한다. 이 말은 만고의 진리이고 황금율로 거부감없이 받아들여지고 있다. 우리 나라에서의 수의술(術)과 교육의 기원이 어떻게 이루어 왔는지는 뒤로하고 오랜 동안 한국 수의교육이 개혁되어야 한다는 사실은 수의 교육분야는 물론 수요자 측에서도 꾸준히 논의되어 왔으며, 심지어는 세계 수의 사회에서도 공식적으로 국제회의 석상에서도 논란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한국 정부에 정식 요청이 있었다.

수의 교육에 관하여 몇 사람의 선각자는 이 문제를 미리 예측하여 수의교육 연한을 6년으로 연장하여 6년 제의 학생까지 선발하여 놓았으나, 다시 4년 제로 환원하는 현상도 있었다. 그 후 10여년이 지나 또 다시 교육 연한의 연장 문제를 수의 분야의 가장 큰 현황 문제로 삼고 이를 성사하기 위하여 총력을 기울여 추진한 결과 정부에서도 그 뜻을 또 한번 더 받아들여 1996년 8월 13일 국무회의에서 교육법 시행령 제155조 중 “의과대학, 한의과대학, 치과

대학”을 “의과대학, 한의과대학, 치과대학 및 수의과대학으로 의학과, 한의학과, 치의학과 및 수의학과로 한다”로 개정하여 1998학년도에 6년제 수의학 교육이 시작되어 오늘에 이르렀다. 그 동안 수의학 교육 연한 연장을 위해서 전국 수의학교육협의회와 전국수의과대학 학장협의회를 비롯해서 대한수의사회 그리고 농림부 등 수의관련 기관과의 공조 체제를 구축하여 추진한 것에 대하여 타 분야에서는 선망의 대상이 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우리가 당초에 목적인 바는 수의학교육 연한을 4년에서 6년으로 연장한 것은 현재 한국의 수의 산업분야에서 요구하는 수의사의 수준을 높여 그 시대에 부합하는 수의사를 양성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었다. 그러나 현재까지는 4년제와 달라진 것은 물리적으로 교육 기간을 단순하게 연장하는 결과 이외 얻어진 것이 없다. 필자는 그 간 대학에 재직하고 있는 많은 교수들과 이 문제에 대하여 의견 교환을 한 바 있다. 모두가 한결 같이 이대로는 안 된다는 의견이기에 전국 수의학 교육협의회에서 근원적인 대책 방안이 나올 것을 기대하였으나 4년이 지나 2000년이

되어도 소식이 없고 다만 갈 때까지 가서 10개 수의과대학 중 자연경쟁에 의해서 자연도태 되는 길 밖에는 없다는 지극히 평안하고 무책임한 자세에 안타까울 뿐이다. 다행스럽게도 늦은 감은 있으나 이 문제를 거론할 기회를 갖는 것은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는 이 세대에 속하는 우리들이기에 나의 사소한 이득과 이기를 버리고 위기에 처하여 있는 이 나라 수의 축산 산업과 수의학 교육의 백년대계를 위해 나를 버리는 경국제세형(經國濟世型)의 교육자적 자세로 임하여 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평소애 수의사의 수요측면에서 제언하고자 한다. 낡은 것과 새것, 전통과 혁명, 보수와 진보가 업치락 뒷치락이 혼재하는 시대의 사회이다. 낡은 것이 무너져 가는 그 틈바구니에서 새 것을 탄생하는 진통을 경험하는 고난의 시대이다.

이런 시대를 사는 사람들은 역사적 변화를 인식하기가 용이한 동시에 자기들 앞에 놓인 역사적 과제에 대하여 의식이 강렬하다. 따라서 이 엄청난 격변이 어디서 왔느냐고 묻는 동시에 이 변화가 어디로 가야 하느냐고 묻게 될 때 과거에 대한 인식과 미래에 대한 사명이 현재의 「나」의 삶에 하나로 통일된다. 이렇게 과거와 미래가 현재의 삶에 살아 움직이는 역사적 감각을 역사 의식이라고 한다. 과거를 현재 속에 살리고 현재를 과거 속에 살려서 과거와 현재가 하나되는 역사의식, 미래가 현재 속에 움직이고 현재가 미래로 뚫고 들어가서 미래와 현재가 하나되는 역사의식을 갖는 것이 올바른 역사 의식이다.

우리는 과거 전통적인 농경사회와 같이 사회적

구조에 기본적인 변화가 없는 안정된 사회는 역사란 무엇인가 묻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런 사회에서는 적극적이고 혁명적인 역사적 사건은 없고 4계절의 자연적 변화가 무엇 보다 중요하기 때문이다, 그러한 사회의 환경은 역사에 관해서 말하지 않고 자연에 관해서만 말한다.

역사란 무엇인가를 진지하게 묻는 사회는 구래(舊來)의 안정된 사회구조가 무너져 가고 뭔가 새것이 만들어질듯 하면서도 아직 만들어지지 않아 주관적으로는 불안하고 객관적으로는 불안정한 사회가 된다. 우리는 올바른 역사 의식을 갖고 우리 수의분야의 현주소를 심안의 눈으로 꿰뚫어 냉철한 판단으로 이 당면한 과제를 슬기와 지혜를 총동원해서 한국적이란 아무런 의미없는 수의교육의 테두리에서 벗어나 세계 수의과학교육을 접목시키기 위해 다소 희생이 따르는 고통마저 감내하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에게 부여된 수의사의 숭고한 국가적 사회적 사명을 다하여 준엄한 역사 앞에 책임을 다해야 하겠다. 매사는 기회가 있다. 지금 국민의 정부는 구조 조정을 통해서 과거의 구습을 과감하게 버리고 새틀을 짜고 있다. 우리 나라 현실에서 수의과 대학이 갖고 있는 문제점은 21세기에 국제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수의과 대학으로서의 최저기준의 시설과 교수 수의 확보이다. 현재 사립대학을 포함한 10개 수의과 대학을 유럽이나 미국 등의 국제 수준으로 갖출 수 있는 예산과 시설의 확보가 가능할 것인지? 이는 불가능하다고 본다. 그렇다면 차선의 방법은 무엇인지 보다 진지한 검토가 오늘의 토의 과제라고 생각한다. 안일하게 갈 때까지 가보자는 것은 무책임으로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임하지 아니할 경우 냉엄한 역사적 심판을 받을 것은 자명한 일이다.

2. 수의술(獸醫術)과 교육의 기원

의술의 기원이 멀리 인류의 원시시대에서 비롯되었듯이 수의술도 인류가 짐승을 길들이기 시작한 때부터 행하였다고 전해지고 있다. 단군신화에서 보듯이 시초의 수의술은 기도, 주원(呪願), 금기, 무주(巫呪)적 방법과 침구, 마늘 같은 약제가 사용되었을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삼국시대를 거쳐 조선시대에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 사실 자료에 수의와 관련되는 기록이 있다. 그중 고려조 문종 30년(1076년)에 수의 박사가 의술, 복사(卜師)와 함께 제16과 22결(結)에 배정되어 처음으로 수의 교육이 실시된 흔적이 있으며 이때 우리 나라에서도 수의 제도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현대 수의학의 발생지라고 알려져 있는 구라파의 경우 18세기 초 프랑스에서 소의 질병(현재의 우역)이 발생하여 이를 방제하기 위하여 수의국(局)을 설치하였으며 우역 방역에 필요한 요원을 양성하기 위하여 왕실 수의과 대학을 설립하였다. 그후 18세기말부터 19세기초까지 유럽 지역의 여러 나라에서 이들 수역(獸疫)의 유행을 막기 위하여 방역 및 교육기관을 설립하여 이에 대처하여 왔다. 한국의 경우는 1876년의 병자수호조약으로 당시 쇄국정책에서 문호개방이 시작되던 1905년에 을사보호조약, 1906년에 통감부가 설치되는 등의 한반도의 정세가 소용돌이에 휩싸인 상황에서 수역 정책에 있어서는 당시의 가축전염병은 장역(疫:山川惡氣의 병), 여역

(내역:癩:문둥병), 우역 등의 명칭으로 유행하였으며 조선조 말까지는 이러한 것을 일종의 천재로 간주하여 왔었다. 1870년 만주 시베리아로부터 우역이 침입하여 그 후 매 3-4년마다 유행이 반복하여 막대한 고통과 피해를 받아 오다가 1890년 전후에는 전국적인 유행으로 그 참상이 실로 표현하기가 어려운 정도였으며 (고종 순종신록-2- 398 면) 기록에 의하면 평안 및 함경도 등 북부지방에서의 우역 감염으로 평양에서 소 100두 중 살아남은 것이 불과 3-4두밖에 없다고 하여 오로지 축력에 의한 경종농업시대에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짐작된다. 수의학의 발상은 가축을 다스리기 위해서였으나 한편 사람들이 이들 짐승들로부터 얻어지는 먹거리를 섭취하고 앓거나 사망하는 사례가 발생하므로 이들 동물로부터 얻어지는 식품에 대한 위험을 덜기 위한 조치가 취해지기 시작되었다. 따라서 지중해 연안의 초기 문명구에서는 식육동물의 적부를 판가름하는 규정인 모세의 율법(Leviticus, 11:(규약) 레위기, Deuteronomy, 14:신명기] 성경을 비롯해서 프랑스에서는 1162년, 영국에서는 1319년, 독일에서는 1385년에 식육검사가 실용화 되었으며 당시는 식품의 적부의 감별과 육안 검사를 위주로 실시하였다. 미국의 경우는 1800년대에 부추간이 중심이 되어 생산자와 소비자를 위해 그리고 1890년에는 무역 지원을 위해서 병축의 수입과 식용금지 등을 골자로 하는 검사 법이 통과하였고 1906년에 생, 사체처리 과정별 검사, 가공장에 대한 환경 규제 등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식육 검사법이 제정 운용되었다.



3. 한국수의학 교육 제도 변천 역사

한국의 수의학 교육제도 변천과 그 당시 시대 상황을 개괄하면 다음 표1과 같다.

표1. 년대별 한국 수의학 교육 발전 변천 역사와 사회상

년 도	수의학 교육 기관의 변천	사회 여건과 상황
598 1399 1504-4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본황실의 초빙에 의한 수의술 전도, 귀국후 수의학교 설립했다고 하나, 근거 미확인(미국 미시간 대, 스미스 코트 교수 저서에서) · 이조 정종(正宗)원년 『藥濟生集成方』중 「牛醫方」, 「馬醫方」 책자발간 · 가축의 질병예방 목적, 소, 말, 양, 돼지, 전염병 치료방 간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축우에 의한 경중농업
1907 193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원농림학교 수의 속성과 개설, 1회졸업생(20명)배출 후 폐과 · 수원농림고등학교 3년과정 수의축산학과 신설(일본인과 말 대상위주) · 3년제 전문학교 과정(중학교5년 졸업 후 입학) 1945년까지 한국인 30명 졸업 · 중학교 과정 5년제농업학교 수의축산과 설립 (경성, 이리, 대구, 의주 등지에, 군농회기수, 일선 실무에 종사하는 초급 기술인 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만주, 시베리아 인접국 우역 발생 · 일본 농상무성 우역혈청소 부산에 설립 · 2원제 수의교육 · 농우, 가축, 가금의 전염병 발생 감시와 예방약접종
1945 1946 1947 1953 195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방과 더불어 미 군정청 관리, 후생부 수의국 설치 · 수의 업무 및 교육 미국식으로 전환 분위기 조성 · 수원 농림고등학교→수원농림전문대학교→서울대학교 농과대학으로 개편, 농과대학내 수의학과 신설, 축산학과와 분리 · 서울대학교 수의학부로 승격과 동시에 서울 연건동 구 경성의학전문대학교로 이전 · 6.25동란으로 부산가축위생연구소로 피란,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으로 승격, 서울로 환도 · 1951-55년까지 6개 수의학과 신설 (전북, 전남, 경북, 제주, 경상, 서울시립) 수의사 양산 체제 · 서울대 수의과대학에 미국 ICA원조 자금 투입, 11 명의 교수훈련, 7만 불 기자재 원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광복과 더불어 연합군의 진주, 38선 경계로 군정 선포 · 정계의 소용돌이, 정당 및 사회단체 100여개 난립 · 1948년 정부 수립 · 1950년 6.25 전란 · 1953년 휴전 협정 · 1955년 농업부문 국민 총생산의 44% 점유 · 자유 경제체제와 민주제도의 정착과정에서 최저생활을 유지하는 절대 빈곤 기간

년 도	수의학 교육 기관의 변천	사회 여건과 상황
196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대 수의대를 정비계획에 의거 농과대학 수의학과로 격하, 수원으로 이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62-1966까지 경제개발 1차 5개년계획 (축산진흥1개년 계획)수립추진. 공업 발전, 수출 주도형 경제성장전략 추진 · 1965년 식량증산 7개년계획 수립추진 · 농업관련 정부기구 개편, 농업국책사업으로 추진 · 1960년가축가금 사양두수 · 한우:1,010천두 · 젖소: 866두 · 돼지:1,390천두 · 닭:12,030천수
1973 1975 1976 1978 197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법 개정으로 수의대 교육년한 4년→6년으로 · 전국 8개수의과대학 폐과, 서울대에 수의과대학 재설치 (예과 2년, 본과 4년) · 수의과대학 예과제도 폐지, 4년제로 환원 · 경북대, 전남대에 수의학과 부활 · 서울대 농대 수의학과→수의대로 재승격 · 경상대, 건대 수의학과 부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경제 고도성장에 힘입어 축산도 1970년대에 년 평균 10%이상 성장 · 산업구조의 고도화 · 식량자급 국가과제로 채택, 중농정책의 개막
1980 1982 1988 198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북대 수의학과 부활 · 충남대 수의학과 신설 인가 · 충북대, 강원대 수의학과 신설 인가 · 경북대, 경상대, 전남대 수의학과→대학으로 승격 · 제주대 수의학과 부활, 전북대 수의학과 대학 승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80년 2차 오일쇼크와 정치불안→부의 경제성장. 80년대 후반 30년간의 저임금, 저가격 수출 증대의 전략 한계→분배육구 수용, 성장전략 의수정 · 1980년대 농업이 15%수준으로 감소, 축산산업도 성장 둔화 · 1981년 한국수의학교수협의회 발족 · 84-88년 UNDP5개년 가축위생강화사업 추진, · 86아시안, 88올림픽 지원, 한국수의기술 국제적 인정 · 1989년에 전국수의과대학장협의회 발족
1991 1994 1996 1997 2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충남대 수의학과 대학으로 승격 · 충북대 수의학과 대학으로 승격 · 교육법 시행령 개정으로 수의학교육연한 4년에서 6년으로 연장 · 1997학년도부터 10개수의과대학 및 수의학과에서 480명의 학생 선발 · 건국대 수의학과 대학 승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91년UR협상, WTO 출범, 축산을 포함 농업이 완전 국제경쟁에 노출 무한 경쟁 시대로 돌입 · 가축위생연구소에 잔류독성과(1991), 해외전염병과신설(1994), 연구인력증원 · 1994년 전국 국립대학교 수의학과 IBRD 차관으로 연구장비 보강 · IMF 위기와 더불어 축산 및 수의산업에 총체적인 위기 직면 · 1998년 한국 수의관련 중앙 정부기관인 수의과학연구소와 국립동물검역소가 통합. 국립수의과학검역원으로 출범

4. 수의학 교육 연한 연장의 필연성과 반성

앞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근래에 와서 한국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수의학 교육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여론과 구체적인 방안이 관련 국제회의에서 제기되어 왔으나 오직 우리나라만이 교육의 내실화는 고사하고 세계에서 유일하게 4년제를 고수하여 한때는 국제적으로 4년제 수의교육 이수자에 대한 수의사 자격인정을 제한하자는 제의도 있었을 뿐만 아니라 세계수의사회(WVA: World Veterinary Association)에서는 한국 정부에 수의 교육 연한 연장에 대한 건의도 있었다.

따라서 한국의 뜻 있는 수의사들은 수의 교육의 개선을 주장하였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수의 교육 분야에 봉직하고 있는 교수님들이 이러한 분위기를 간파하고 교육 연한 연장을 위한 움직임을 보고 지극히 다행스럽게 여겼다. 필자는 대학 졸업 후 줄곧 연구기관에서 근무하였기에 수의사의 수요자 측면에서 한국 수의학교육의 제도적인 개선에 관심을 갖고 지켜보았다. 뿐만 아니라 배출한 수의사의 사회활동 분야 특히 산업동물 생산분야와 검정과 검사분야, 그리고 수의 공중위생분야, 첨단 수의과학 기술, 나아가서 수의학을 토대로 하여 앞으로 우리 수의사들이 기여할 수 있는 분야에 이르기까지 고려하여 보았으나 미래지향적인 분야는 고사하고 현재 우리들에게 맡겨진 역할 수행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생각이 들 때가 많았음을 솔직히 고백한다.

따라서 이러한 과제는 많은 수의과 대학 교수님들

께서 지혜롭게 대처해 나아가리라고 믿고 우리들이 협력할 부분이 무엇인지, 어떻게 도울 것인지 많은 궁리를 한 바도 있다.

우리 나라에서 수의에 관한 최초의 기록으로는 혜자법사(惠慈法師:고구려)가 일본에 건너가 수의기술을 전파하였다는 것을 보아도 우리나라 수의술(獸醫術)은 일찍 시작되었음을 알 수 있다.

해방 후 6.25전란과 36년간의 식민지정착하에서 자본주의와 민주화 과정 등의 사회 소용돌이 속에서 1962년 정부의 고등교육기구 간소화 방침에 따라 수의과대학이 수의학과로, 제주대학교 수의학과 폐과, 1970년대 한국경제가 고도성장기를 맞이하여 1960년에 비하여 한우의 경우 1.5배, 돼지가 1.3배, 닭이 1.7배, 젓소가 무려 98.7배로 증식하여 연간 10% 이상의 고도 성장을 유지하였을 뿐만 아니라 육우 및 육계란 새로운 육류 공급 산업이 전개되고, 차차 한국이 고도산업사회를 접어들기 시작하면서 도시를 중심으로 한 개를 비롯한 애완 동물과 애완 조류, 수족관의 열대어, 그리고 정부의 양식 산업의 육성책에 힘입어 수생동물 양식산업이 크게 발전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생명공학이 눈뜨기 시작하여 분자 생물학이 수의학문과 접목되는 등 과거의 수의학문의 개념으로는 수용 할수 없는 상황이었다.

당시 한국에서도 수의학의 미래를 내다보는 수의 인사들은 우리 나라 수의교육을 크게 우려하고 있었을 때였다. 이때 어떤 노 수의학 교수님이 우리 나라 수의 교육의 후진성을 개탄하면서 이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뜻을 같이하는 동료 교수들을 규합하여 관련 정부

부서에 교섭하던 모습이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된다. 당시 필자도 수의학 교육 연한을 6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에 적극 찬성하여 문교부 장관식장관과 서울대학교 농과대학장 표현구 학장도 함께 만난 일이 있었다.

그때도 수의학교육 제도 개선의 당위성과 필연성에 대하여는 지금과 다를 바 없었고 당시 각 수의과대학의 입장을 고려해서 국립수의과대학으로 하여 학연이나 지연의 걸림돌을 제거하는 동시에 전국 수의과대학 교수 T/O와 예산을 국립수의과대학으로 집중하는 방안을 제시한바 있었다.

그후 자세한 경과는 의논이 없어 알 수 없으나 1974년에 문교부에서는 각 대학교의 수의학과는 폐과하고 서울대학교에 수의과대학을 신설하여 예과 2년, 본과 4년의 과정으로 신입생을 선발 하였으나 불과 2년간 예과 과정만 선발하고 1975년 후반기에 문교부에서는 구제로 다시 환원하고 경북대학교 농과대학과 전남대학교 농과대학에 수의학과를 부활 시켰다. 이러한 처사는 우리 나라 수의학 교육을 크게 퇴보시킨 처사였다. 당시의 정황을 잘 알 수는 없으나 필경이 문제는 수의학 교육을 담당하는 일부 측의 요청에 의하여 이루어졌음을 감안한다면, 수의학과를 부활시키기보다 6년제 수의과대학을 신설하였다면 이미 6년제 수의학 교육이 정착되었을 것이다.

그후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 14년이 지나 교육 연한 연장에 관한 논의가 되기 시작하여 전국 수의과대학학장협의회(회장 권종국)에서는 1989년에 교육연한연장 건의문을 제출하였고 이듬해인 1990년에는 한국수의학교육협의회

(회장 윤화중)에서 교육부에 같은 건을 건의한 결과 교육부에서 검토하기 시작하여 1994년 중앙교육심의회 고등교육분과위원회에서 서울대 수의대 양일석 교수의 연구결과 보고, 1995년 7월에 공청회를 개최, 한국수의학교육협의회, 대한수의사회 주관, 교육부 후원으로 개최한 후 수차에 걸친 교육부와외의 접촉과 대한수의사회 이길재 회장과 교육부장관과의 면담, 이수성총리의 배려(최희인, 서울 수의대 당시 학장)등 수의분야가 총동원, 합심 노력한 결과 우여곡절 끝에 1996년 5월 20일 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관보 13316호)되고 같은 해 8월13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8월 23일 대통령령(15,141호)으로 공포되었다.

이러한 일련의 노력들은 수의학교육의 내실을 기하여 한국에서 필요한 자질을 소유한 수의사를 수요에 알맞게 배출하는데 그 기본 목적이 있을 진대 단순하게 교육 연한만 연장하므로 해결된다는 단순한 발상은 위험한 것이다.

그 동안 수의학교육의 개선을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우려 애쓴 교수와 주변의 협력자들에 대하여 수의학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현직자는 역사적 소명을 갖고 책임을 완수할 각오로 임하여야 한다. 들리는 바에 의하면 서로 눈치 보면서 갈 때까지 가서 10개 수의과대학 중에서 경쟁에서 건디지 못하는 대학은 자연도태될 것이라는 이야기이다. 이 얼마나 무책임한 교육자의 모습인가! 필자는 이러한 일이 사실이 아니기를 바란다.

교육법 시행령이 공포된 후, 그렇지 아니 해도 과거 수차에 걸친 시행착오를 겪은 바 있는 수의학 교육 개선이 어떠한 모습으로 진행 할



것인지 궁금한 차에 대한수의사회 회지에 “6년제 수의학교육과 우리가 해야 할 일”이란 제호로 제언의 원고가 들어 왔다. 필자는 편집자에게 게재(1997년도 8월 호) 하도록 하였다.

수의사회지가 배포된 후 모협의회 회장으로부터 항의 전화를 받았다. 항의 요지는 왜 수의사회에서는 협의회의 의견도 들어보지도 않고 원고를 게재 하였으며 전국에서 빗발치는 원성이 높으니 책임을 지라는 것이었다. 책임질 일이면 책임을 지겠다고 전제하고, 조용하게 그리고 부드럽게 “대한수의사회지는 어느 대학의 기관지가 아니라 대한민국 수의사를 대표하는 기관지로 대한수의사회의 회원이면 누구든지 투고할 권리를 갖고 있음을 아시고, 전국에서 빗발치는 원성이 있다면 당당하게 그 투고에 대하여 반박하는 투고를 하면 항시 검토하여 게재 할 것을 알리고, 게재를 권고한 바 지금까지 단 한 건의 반박투고도 없었다.

이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이는 그간 수의 분야의 발전이 활발한 의견교환과 토의나 검증 없이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일들로 장애를 받고 있음을 우리 주변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어 이러한 폐단은 앞으로 개선해야 할 부분으로 생각한다.

한국 수의학과 수의산업 발전은 수의학 교육 연한의 연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수업연한의 연장은 극히 일부분의 방법에 불과하고 수업연한의 연장에 따른 교수진용의 수를 확보하고 나아가 교육시설의 확충 등의 후속 조치가 따르지 아니하는 한 학생들에게 막대한 교육비의 부담과 시간의 낭비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우리 수의 산업분야가 타분야와의 무한한 경쟁에서 밀려날 우려도 배제 할 수 없다. 따라서 기성 수의분야의 지도자적 위치에 있는 수의사는 이 사안을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받아들여 과거와 같은 실수가 재연되지 않기를 간절하게 바란다.

이제 우리에게 부과된 이 과업이 마지막의 기회로 삼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당사자인 대학에서는 사소한 자기의 이기심을 버리고 명분과 대의를 위해서 마음을 비우고, 이 분야에서 사명감을 갖고 있는 인사들과 함께 힘을 규합해서 지혜롭게 대처한다면 방법과 길이 있음을 밝혀 둔다.

5. 수의학 교육의 국제적 동향

가. 일본

우리 나라와 환경과 관습이 비슷하고 수의 축산 및 교육제도 등이 비슷한 이웃 일본의 수의 교육의 최근의 동향을 살펴보면 1978년에 6년제의 제도로 바꾸게 되었으며 이는 한국에서 1973년에 6년제의 학제로 바꾼 후의 일이다. 이미 고인이 되신 일본의 수의사의 대부 역할을 하여온 오찌(越智勇一)박사가 같은 해 한국을 방문하였을 때 한국에서 수의학 교육 연한을 6년으로 개선한 사실을 아시고 일본으로 귀국하여 일본에서도 수의학 교육제도 개선을 서둘게 된 것으로 안다.

그 당시는 지금과 같이 국제적으로 수의교육에 관한 일치성이나 통일화의 (harmonization)의

움직임이 없었던 때였다.

따라서 일본에서는 교육 연한의 연장을 위한 전초적인 단계로 대학원 석사과정을 의무적으로 수료하도록 하는 조치를 취한 다음 1984년에 와서 6년제로서 신입생을 모집하였다.

그후 10년이 경과하여 일본의 수의교육제도 개선에 따른 중간 평가를 한 기록을 보면 4년 제때에 접할 수 없었던 다양한 수의분야 교육을 강화함으로써 보다 전문적이고 세분화된 교육이 가능하게 되었다고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당시 일본에서는 전수교육이라는 특징적인 교육제도로 수의학과 4년이 되면 자신의 취향과 성적 등을 참작하여 2-3년간 졸업논문을 위한 연구를 수행하여 학부에서부터 연구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수의학의 실천과학의 진수를 알게 하였고 그 성과는 물론 연구활동에서도 큰 성과를 올리고 있었다.

이와 같은 제도적 변화는 학부졸업 후 사회에 진출하여 바로 독자적인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여 당시 연구하는 수의사를 양성 배출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이 때 수업시간은 전수교육을 포함해서 5,000시간 이상이었다.

이 때의 수의학 교육제도 개편에 따른 장점과 문제점들을 정리 요약하면 다음 표와 같다

표2. 일본의 6년 제 수의학 교육의 장점과 문제점

장 점
1. 의학, 치의학 분야와 동일한 수준으로 사회적지위 향상(공무원의 경우)

2. 과목수가 증가함으로써 다양한 분야에 전문적 지식 전수 가능(분자 생물학 등)졸업 후 바로 전문가로 활동 가능
3. 연구분야에 활성화에 기여, 연구의 질이 국제적 수준으로 향상
4. 반려 동물 및 산업동물에 대한 임상진료의 질이 향상, 수의사에 대한 신뢰도 증가, 산업동물의 경우 치료기간의 단축으로 인한 경제성 향상에 기여

문 제 점
1. 교육연한 2년이 연장에 따른 교원 및 시설 확충이 뒤따르지 못하여, 교육의 질적 향상에 문제. 임상 수의학의 경우 극히 소수의 교수가 내과, 외과, 산과 등 모든 임상 분야를 담당해야함으로 6년제 교육 후에도 임상 수의학 교육의 질적 향상에 기여하지 못함.
2. 5-6학년 과정을 4년제 교육과정 당시의 석사 과정에 해당되는 과정으로 인식, 연구 주제로 하는 교육 이수. 임상교육에 배려부족→실학(實學) 경시 경향으로 흐름
3. 사회 각분야 특히 공중 위생분야 및 산업동물 임상분야에 대한 수의사의 수급 불균형이 문제.

이로부터 15년이 지난 오늘날에 이르러 일본에서는 일본 수의교육 6년 제가 실패하였다는 자성의 소리가 높아 가고 있음을 우리는 듣고 있다. 그 실패란 결론의 배경에는 당초부터 동경 대학과 북해도 대학은 조금 늘였으나

① 기타 국립 8개 대학을 절반이하로 통폐합



하여 예산상 국가에 부담을 지우지 않고 자체적으로 해결하겠다는 방향이 잘못되었으며

② 일본에서는 수의학 교육 연한이 6년으로 개편됨에 따라 우수한 학생들이 많이 응모하여 지방자치단체제도가 발달한 일본에서는 서로가 그 지방에서 수의학과를 없애지 않게 하기 위하여 지방의회의 정치가들의 줄다리기에서 통폐합이 전면보류 되어 지금에 이르렀다는 점이다.

③ 이러한 결과는 6년 제의 수의학과 졸업생의 사회적 평가에서 문제가 지금에 와서 제기 되기 시작하였다. 그 원인으로는

첫째로는 기업의 채용 관계자들은 입사시험에서 수의학과 6년제 졸업생 보다 이학, 약학, 공학, 생명과학 등의 생명과학 분야 석사 졸업생이 더 좋은 성적을 받기 때문에 수의사를 채용하기가 어려움에 처하고 있다는 점이다.

둘째로는 임상에 종사하는 선배 수의사들로부터 수의사 국가고시 시험에 합격했다 하더라도 지식과 기술이 현장 임상가로 활용하기에는 부적합하다는 결론이다.

따라서 최근 일본에서는 우수한 학생을 선발하여 그들의 자질을 살리지 못하고 종전과 같은 수의사를 배출한다는 혹평이 나오고 있다. 일본에서 수의교육 제도 개선 후 20년이 경과한 1998년 10월에 사단법인 일본수의사회가 6년제 수의학 교육제도에 대한 조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6년제 수의학교육 환경이 부실하다.

교육 내용에 불만 표시, 수의사 수요처에서는 4년제와 6년제 수의사의 자질에 있어서 현저한 차이가 없다.

6년제 교육 실시 후 강좌 수 (교원 수), 인원, 시설, 설비등의 교육 환경 정비가 이루어지지 않고 그 충실도도 불충분하다는 지적.

둘째 임상과 응용분야의 교육 즉, 실습 등의 기술 교육이 불실 하다.(수요자측의 지적)

셋째 일본수의사회에 의한 평생교육(生涯)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압도적(특히 소동물 진료관계)

넷째 대학교원으로부터의 자유 의견
6년제 교육 환경의 미비점 지적.
특히 국립 8개 대학의 교육환경 정비 사급 지적.

나. 유럽 수의교육협의회(EAEVE) 제시한 수의과대학 최저 기준

본 항에서는 1999년 서울대 수의대 이영순 학장이 발표한(대수지1999년, 35권 1호) 것을 발췌 인용하였다.

세계적으로 수의학교육의 질적 향상과 수의분야에 부과된 역할의 성실한 수행을 위해 수의 관련 국제기구는 물론 각 지역별로 부록을 형성하여 수의학교육의 질적 향상과 다양한 수의 직무(Multi faced veterinarian)의 역할담당을 위해 노력하여 왔었다. 따라서 수의학 교육의 개선과 나라 또는 지역 사이에는 그의 통일되고 합리적인 방안이 필요하게 되었다.

미국과 캐나다 권역, 그리고 영연방권에서는 이미 수의과대학 교육의 규격화가 끝났다.

또 EU 참가국 15개국에서는 49개 수의과대학에 대하여 EAEVE(European Association of Establishment for Veterinary Education)에 의한 외부 평가가 끝나고 EU통일 기준에 의한 수의학 교육이 진행되고 있다.

이들 3극 체제 (미국 캐나다권, 영국 연방권) 간의 수의학 교육의 기준에는 커다란 차이가 없기 때문에 DVM(Doctor of Veterinary Medicine) 이나 수의사의 자격의 상호 인정은 시간 문제일 것이고 이들 국가들은 WTO 체제하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나라를 비롯해서 일본, 대만과 중국, 극동 지역시장을 노리고 있는 상황에서 뉴라운드(NR)에 어떠한 명분을 들고 협상에 임해야할지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 더욱이 한국, 일본, 대만, 중국은 세계최대의 수출 대상국가들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미국이나 캐나다 보다 우리의 여건과 흡사한 EU에서 제시된 수의과대학의 최소 기준 안을 우리 나라 교육제도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여 제시한다.

1) 전제 조건

이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교직원과 학생들에 관하여 다음의 전제 조건이 필요하다.

- ㉠ 학생은 5년 교육 기준으로 할 때 각 학년에 100명 재적 총 학생 수 500명
- ㉡ 교원은 학생 대비 1:5로 교원 총수는 100명 (ACVT 가이드라인)
- ㉢ 교무직원이나 테크니시안대 교원 비율은 2:1 교무직원과 테크니시안의 총수는 200명(ACVT 가이드라인)
- ㉣ 졸업 후 임상 연수생 (인턴, 레지던트) 20명, 대학원생 50명
- ㉤ 사무 직원수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preclinical, paraclinical, clinical의 3강좌를 설치한다.

※ACVT: EU에 설치된 Advisory Committee on Veterinary Training의 약칭

2) 수의과대학 설립할 때 시설(건물)의 최저 요구 기준

표3. 수의과대학 설립시 EAEVE의 시설 최저 요구 기준

구 분	건물중포함해야할시설명과방의수	m ²	평
1.사무 공통 강좌	▽사무 ▽비서실 ▽학장실 ▽부학장실 ▽일반사무 ▽보관실 등 ▽회의실(7종)	350	106
	▽강좌사무실 ▽강좌 공통 ▽비서실 ▽강좌 주임실 ▽교원실 ▽대학원생실 ▽임상연수생실(인턴, 레지던트) ▽연구실(15평 연구실, 3명의교원사용) ▽교무직원실 ▽테크니시안실 ▽세미나실	4,461	1,349
2.학생시설	▽학생공통실 ▽학생경의실 ▽사위실 ▽로커룸 ▽학생식당	1,300	393



수의학 교육제도 개혁에 관한 국제심포지엄

3.교육시설	▽교실 4개(120명용 76평형 3개, 250명용106평형 1개) ▽세미나실 10개(30명용 12평형 6개, 50명용 18평형 4개) ▽도서관(250석):수의학, 생명공학에관한 광범위한 정간물과 교과서 소장, 표준 전자정보 시스템구축) ▽도서관 사무실 ▽컴퓨터실(100명) ▽시청각실(100명용 2개) ▽소실험실(100명용 2개) ▽해부실 ▽해부표본실 ▽병리표본실 ▽동물관찰실	3,444	1,042
4.소동물병원	▽병원사무실 ▽대합실 ▽기록실 ▽약국 ▽테크니시안실 ▽진찰실 ▽특별진찰실 ▽처치실 ▽병실(개 50, 고양이 30, 기타 15) ▽운동공간 ▽격리병동 ▽진단용화상장치실 ▽마취분비실 ▽기구소독준비 저장실 ▽수술실 ▽회복 집중치료실 ▽하우스키팅 ▽세탁실 ▽요리실 ▽창고 ▽세미나실(30명용) ▽수면실	1,543	467
5.대동물및기타 가축병원	▽접수 ▽병원사무실 ▽병원사무실공간 ▽기록실 ▽약국 ▽창고 ▽진단용화상장치실 ▽진찰치료실 ▽치료실 ▽병실(말 40두) ▽제철실 ▽병실(소 35두) ▽병실 (양 30두, 돼지 20두) ▽견초등사료창고 ▽기구보관실 ▽수술실 ▽회복집중치료실 ▽격리실 ▽경의사위실 ▽테크니시안사무실 ▽포장운동공간 ▽오물 깔짚등 폐기시설 ▽수면실	4,564	1,381
6.병리/임상병리 (바이러스,미생물,식육, 우유,환경위생,포함)	▽병리해부실 ▽저온실 ▽연구실험실(세균, 기생충, 바이러스, 면역, 병리조직, 생화학, 혈액학, 내분비학, 유육 및 환경위생학 ▽스텝실(학생은 도축 도계장, 식품가공장도 경험필요)	825	250
7.목장	▽우사(75두) ▽마사(20두) ▽기타가축사 ▽목부숙소 ▽목초지 ▽경작지(오물처리장 부설 포함)	3,550 100 h	1,074 100정보
8.실험동물시설	▽실험동물,토끼,마우스 등 사육시설 ▽개,고양이 사육시설 ▽감염가축격리시설▽실험을 위한기타 가축 사육시설 ▽실험용 말사육시설	1,520	460
총 계		21,557	6,521

※ 수의과대학 필요 시설 면적 21,550㎡ ≒ 6,521 평(초지, 경작지 100정보 제외) 관련 시설을 포함한
총 소요면적(33%증) =28,671㎡ ≒8,673 평

3) 임상 병리재료의 최소 요구 기준

국가나 지역에 따라 다르다. 그러나 어느 한쪽의
예수가 적을 때에는 다른 한쪽의 예수를 늘릴
필요가 있다. 모든 종류의 임상 재료를 준비해야
한다는 것을 너무 강조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어떤 지역에 특별한 필요성이 있다 하더라도
임상 재료의 준비는 아래의 동물의 종류에
대한 최소 요구 기준의 50% 이하가 되어서는
안된다. 병원은 년중 문을 열어야하며, 독립채
산제로 운영한다. 병원의 수입은 병원 활동만을
위해서 사용되어야 한다.

표4. EAEVE의 수의과대학 임상 병리재료의 최저기준 표

구 분	동 물	년간 임상병리 재료 두수			
		진료	입 원	수 술	해 부
소동물	개	4,000	1,000	600	200
	고양이	2,000	500	300	150
대동물	말	1,000	750	500	50
	소	41,000	300	150	500
기 타		250	150	50	500

4) 기타사항

표 5. 교원에 대한 그 밖의 기준

교원의 자격구분	구성비율(%)
1. 상근하는 최저 4년의 교육 경험자	75
2. 수의사 면허보유자	75
3. Ph D를 가진 preclinical 혹은 paraclinical분야교원	75
4. Ph D 혹은 임상전문의 자격을 가진 임상교원	85

※ 새로운 대학으로 개설 할 때는 첫해에 최저 25%의 교원이 있지 않으면 안 된다.

6. 한국 수의학교육의 현황과 문제점

가. 한국 수의학교육과 국제 기준과의 비교 검토

우리 나라에서는 2000년 현재의 기준으로 10개 대학에 수의학과가 개설되어 있다. 이중 9개 대학이 국립대학교이고 1개 대학이 사립이다. 교수의 수는 1개 대학에 많게는 27명 적게는 10명 수준으로 10개 대학의 수의학

교수 총수는 148 명으로 평균 1개 대학 당 교수 수는 14.8명이다. 그리고 입학정원은 490명으로 대학별 입학정원은 40명에 서60명으로 교수와 학생비율은 1:16에서 1:9이다.

이러한 사항을 EAEVE와 일본에서 최근에 수의학 교육 개선을 위해 마련한 새로운 기준과 비교하면 표6과 같다.

표 6. 수의학관계대학의 현황과 일본 및 EAEVE의 학생과 교원 기준 비교

대학별	강좌수	교원수	강좌당 교원수	입학 정원	교수/ 학생	비 고
EAEVE준기		100		100	1:5	교무직원, tech,교수비는 2:1 총200명
일본신기준	18 이상	72 이상	4 이상	60 (표준)	1:1 이하	국제기준대응
강원대학교		10		40	1:16	
건국대학교		10		40	1:16	
경북대학교		17		60	1:14	
경상대학교		15		50	1:13	
서울대학교		29		50	1:7	
전남대학교		16		50	1:13	
전북대학교		16		50	1:13	
제주대학교		11		40	1:15	
충남대학교		13		60	1:18	
충북대학교		13		40	1:12	
한국 합계 평균		150		480 (1,950)	1:13	
			15	48(195)		

수의학 교육의 개선의 목적은 그 시대의 사회나 국가가 요구하는 자질을 갖춘 인재를 양성 배출하는데 있다.

따라서 한국에 있어서의 현재와 미래에 요구

되는 수의사의 자질 즉 교육의 목표와 교육의 내용에 따라 전공과목별 교수의 자질과 수가 결정되며 강의 시간의 합산이 교육 연한으로 연계된다.

현재 세계적으로 나라마다 사정은 다르나 이를 공통화 내지는 합치화 하기 위하여 세계 수의사회를 비롯해서 각 지역별로 지침을 마련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최근에 구라파 지역에서 채택한(EU 15개국 과 49개 수의과 대학 참가) EAEVE의 수의학 교육 기준과 우리 나라와 여러 가지 여건이 비슷한 일본에서 고층 끝에 기준을 마련한 기준과 우리 나라 각 대학의 현황과를 비교한 것이 표 6이다.

비교 결과 심한 차이가 있음을 단순 비교에서도 알 수 있다.

이 항에 관하여는 두 가지 방법이 제시될 수 있다. 그 중 하나는 우리 나라에서도 수의과 대학 설치기준안을 마련하여 이 가이드라인에 미달하지 않은 대학이 되도록 각 대학에서 노력하도록 하고 미달 시에는 미국에서 채택하고 있는 외부에서의 평가에 의해서 수의사 국가고시 자격 제한을 두는 방법이 있으며 이러한 제도는 앞으로 어떠한 형태로든지 제도화하여 한국의 수의사가 명실 공히 세계무대에서 활동 할 수 있는 자질을 갖도록 하여야 한다.

또 다른 한가지 방법으로는 다행스럽게도 수의학과 설립된 대학이 10대학 중 9개 대학이 국립대학이라는 점에서 9개 국립 대학의 교수들의 뜻과 의지를 한 방향으로 모아 지극히 논리적이고 타당성 있는 방안으로 교육문화부에 합당한 단일 안으로 제시하는 방법이다.

이는 국민의 정부가 개혁을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명분이 있어 가능성이 높다.

나. 교육시설과 설비

대학 교육에 있어서 교수와 학생 수와 교육연한 다음 중요한 것은 교육시설과 설비이다. 수의학은 이론과학보다 실천과학분야로서 교육 시설은 타 분야보다 그 비중이 높다.

따라서 EU에서도 시설과 설비에는 구체적인 지침을 제시하고 있다. 예를 들면 사무실의 공간에서부터 학생용시설, 교육시설, 소동물 시설, 대동물 및 기타가축병원, 병리 임상 및 바이러스, 미생물, 식육, 우유, 환경 위생 그리고 목장과 실험동물 시설에 이르기까지 방의 수와 크기까지 자세하게 제시하고 있다. 우리 나라 수의학 교육 시설이나 설비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비교 평가할 수 없으나 EU에서 제시한 최저기준(minimum requirement)에 크게 미달될 것으로 짐작된다.

앞으로 우리 나라에 대한 수의학과 교육 시설 기준 마련을 위해서는 필히 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다만 앞으로 수의교육의 개혁방안이 어떠한 방향으로 가닥을 잡느냐에 따라 그 향방이 정해질 것이나 각 대학의 특성과 지역특성을 감안하여 그 기준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다. 임상 병리재료의 최저기준

금번 EAEVE에서 제안된 최저 기준 중 임상에

관하여 제시된 것을 보고 수의학의 진수를 읽을 수가 있다.

수의학이 실천 과학임과 수의학의 주된 업무가 동물의 질병을 관리하는 학문이 중심이 되고 있음을 실감하였고 그 동안 우리 나라에서 산업 동물의 생산 현장에서 수의임상의 접근이 어려웠던 까닭을 알 수 있을 것 같다.

소동물의 경우 개는 연간 4,000두의 진료와 입원 환견(患犬)이 1,000두, 수술두수 600두, 해부가 200두, 그리고 산업동물도 축종 별로 연간 진료두수 입원두수 수술 두수 해부두수를 기준에 포함되고 있음은 지극히 당연하고 이와 같은 학교에서 실무 임상실습에 접하지 않고 귀중한 생명을 다룰 수 있겠는지 의심스럽다. 과연 우리 나라에서 수의과대학 이수 과정에서 축종별로 몇 건의 진료와 입원, 수술 경험을 갖고 수의사로 탄생되는지 조사 통계가 없어 알 수는 없으나 필자의 경험으로 미루어 보았을 때 여기에 제시된 예수에는 접근이 어려울 것으로 생각된다.

지금 수의과학검역원의 전신이었던 가축위생 연구소에서 취급하는 병성감정 사업 실적을 보면 전국에서 연간 1,000여 두/ 200건을 감안한다면 짐작이 간다. 물론 이는 축산 생산현장에서의 필요성과 수의병리의 효용성 내지는 기술의 신임도와 상관관계가 깊다.

특히 우리 나라의 경우 산업동물 임상 분야에서 극히 일부를 제외한 임상분야에서의 현장 접견이 어려웠던 것은 우리 나라 수의 교육 차원에서 이항을 간과할 수 없는 중요 사항이 된다.

필자도 연구소에서 우리 나라 축산의 초기에 생산 현장에서 30여 년간 대민 봉사 사업 차원에서 병성감정을 맡아온 경험에서 더욱 그 중요성을 알고 있다.

EAEVE에서 제시된 예수는 최소 요구 조건이기는 하지만 앞으로 국제사회에서 DVM로서 활약하려면 이 정도 수준에 가까운 임상 실습 없이 어떻게 같은 대우를 받겠다고 할 것인지 이러한 수준의 임상사례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수의과대학도 지역 특성과 교수 진용 등을 고려한 배려가 교육 개혁에 반영되어야 할 사항이다

라. 교원에 대한 그 밖의 기준

이항에 있어서는 우리나라의 경우 그리 중요한 사항이 아니다. 그 까닭은 앞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신설할 대학이 없기 때문이다

7. 수의사 수요 측에서 교육 프로그램에 반영할 사항들

가. 기초과목 보다 임상 수의학 또는 응용수의학 과목에 비중을 둔다.

정부수립 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우리나라의 수의학 교육이 학교에 따라 다소차이는 있었으나 대부분 기초 수의학이 주체를 점하고 있어 총 교육과목의 70%를 점하고 임상수의학 또는 응용수의학의 교육은 30%정도로 앞으로 우리



나라의 수의학교육은 임상수의학과 응용수의학이 전과목의 70%를 점유하는 교육체제로 전환하지 않고는 수의학의 국제화와 사회가 요구하는 지적 전문직업인의 양성이 어려울 것이다. 뿐만 아니라 교육시간에 있어서도 영국 런던대학은 5,055시간(강의 1,521시간, 실습 3,534시간)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이 4,811시간(강의1,277시간, 실습3,534시간), 캐나다 온타리오대학이 4,393시간(강의 2,460시간, 실습 1,933시간) 일본 아자부대학이 4,305시간(강의2,460 시간, 실습 1,845 시간)으로 일본의 아자부대학이 크게 뒤떨어지지 않는 실습시간이 구미에 비해서 1/2 밖에 되지않아 일본에서도 문제가 되고 있다는 이야기이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비교 해보아 할 사항이다. 이러한 교육체제에서는 지적 전문직업인으로서 실질적으로 사회에서 요구하는 수의사의 양성에 대응되지 않는다.

사회나 국가에서 부여하는 사명을 감당하는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수의사로서 올바른 평가 받기가 힘들다. 이러한 현상을 타파하기 위해서는 9개 국립수의과대학의 재편을 서둘러 교육 내용도 기초 수의학 중심 제도에서 임상과 응용수의학 중심제도로의 교육이 전환되어야 한다.

또 21세기의 엄청난 사회적 구성의 변화에 대응하여 산업동물의학(축종별), 소동물의학, 야생동물의학, 수생동물의학, 그리고 수의공중 위생 분야 등 수의분야에 부여된 직업의 다양화(multi faced veterinarian), 국제화로 사회의 요구에 대응할 수 있는 수의사의 양성에 전력을

기울이지 않으면 수의사에 대한 사회적 평가는 가혹해질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 따라서 수의학교육 개혁은 우리 나라 수의학 분야에서 가장 선결해야할 과제이고 우리세대에서 이룩하지 않으면 역사적 큰 과오를 범하게된다.

나. 사회구성의 변화와 수의학 교육의 과제

1) 한국의 식량 자급률

세계의 인구는 앞으로 50년 까지 매년 1억이 증가하는 반면에 개도국의 생활 수준은 날로 향상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의 생화 수준의 향상은 식생활의 풍요로운 변화로 식량의 생산 증가는 수요를 충족시키기에는 미흡하다는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필자는 북방농업연구소에서 중국과 러시아에 우리 농업의 진출을 위해 몇 차례 출장한바 있어 이러한 사실을 더욱 실감한바 있다.

우리 나라의 식량 자급률은 물량 면으로 30% 미만이고 그 부족 분은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그 중 우육의 자급율은 수입쇠고기에 밀려 자급율이 1998년에는 75.3%이고 돼지고기는 일본으로 수출을 하고 있으나, HC 등의 전염병의 박멸 없이는 보장받을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돈육도 수입의 물량이 만만치 않다.

닭고기는 1999년 12월 현재 46,000M/T으로 수요량의 14%나되고 있으며, 곡물의 경우는 쌀만이 자급하고 있는 형편이다. 쌀의 자급도 축산물의 소비가 증가함으로서 가능하였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UR, WTO, 향후 NR에서는 어떠한 변수가 일어날지 알지 못한다. 매년 축산물의 수입이 증가 일로에 있어 자급률을 어느 수준에서 방어할지는 아직 미지수이다.

현재 우리 나라의 식용동물의 생산성이나 안전 대책으로는 국제경쟁에서 불안하다. 여기에는 수의산업의 적극적인 대응이 마련되지 않으면 안 된다.

2) 지구환경의 열악화

21세기에 들어와서 지구환경에 대한 여론이나 국민의 관심은 해마다 높아가고 있다.

앞으로 지구환경에 대한 관심은 국제적으로도 더욱 정책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으며 지구환경의 열악화는 지구상의 생물의 생태계를 파괴하여 인간의 생명까지 위협하게 됨으로 지구상의 생물은 서로 공생하는 환경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시되며 산업생산형 사회로의 전환에 필요한 수의학영역(철새, 야생동물 등의 가검물을 통해, 토양과 수질 등의 환경 오염 측정 등)에서 감당할 분야도 새 영역으로 부상될 것에도 대비해야할 과제이다.

3) 생활 양식의 변화

고령화사회, 핵가족화, 인간의 사회성의 상실 등으로 사람들의 생활 양식의 변화, 남녀의 역할과 가부장제도의 변화, 육친과의 교류도 희박한데 더하여 최근 사이버 공간의 이용 인구의 증가는 더욱 고독을 촉진시킬 수 있어 사회

문제의 원인으로 작용하는 데에 대한 수의학적 대응 방안.

4) 산업동물 의학

21세기에서 폭발적인 세계인구의 증가, UR 또는 NR에 의한 농·축산물 교역의 자유화 또는 생산능력의 감소, 국내생산능력의 감소, 수입 의존에 의한 국내 축산능력의 생산기반의 붕괴 가능성, 현재의 수출국의 생산 수준 향상으로 축산물의 수출국이 수입국으로 전환할 경우 우리 나라 동물성 단백질 확보의 어려움으로 한국인의 식생활 악화가 예상된다.

따라서 우리 나라에서 축산 식품의 생산 기반이 붕괴되지 않기 위한 대책으로는 저 코스트화로 생산 이윤을 향상시켜 외국의 축산물생산 가격보다 낮게 함으로 생산성을 높여야 한다. 이를 통해서 수의학 분야에서는 질병에 대한 예방 대책은 물론 production medicine이 중요시되는 동시에 분자 생물학 등의 기초수학과 응용수학을 구사하여 bio-technology에 의한 생산성이 높은 가축 가금의 생산이나 특수 질병에 대한 내병성 품종으로 개량하는 등의 축산 산업의 생산성에 기여하기 위한 기초교육이 반영 되어야한다.

5) 소동물의학

고령화, 핵가족화 생활 방식의 변화와 인간의 고독화, 일과 생활에서 오는 스트레스해소 방안으로서 반려동물로서 개와 고양이 기타 새로운 companion animal과의 공생이 불가피하다.



현재 한국에서도 이러한 반려 동물의 수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고령자, 어린이의 생명의 중시, 정서 교육, 바쁘게 생활하는 생활인의 스트레스나 고독화 해소의 대상으로서 반려동물과의 공생이 요구된다. 또 고령자, 어린이 또는 심신 장애자에 대한 Animal Associated Therapy도 사회적으로 활발하게 이루어질 조짐이다.

companion animal에 대한 수의학적 대응으로서는 동물의학으로서 광범위한 수의학적 지식과 의료기술이 요구되는 동시에 소동물 임상에 있어서는 동물의로 뿐만 아니라 인간과 동물이 공생하는 사회학적 체제로서 인간과 동물과의 관계에도 대응하는 새로운 학문의 발전을 위한 사회 과학적인 접근도 수의학 교육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사항이다.

6) 야생동물의학

국제 연합의 조사에 의하면 지구환경의 열악으로 인하여 2020년경에는 지구상의 생물 중 하루에 50종부터 150종의 생물이 멸종되어가고 있다고 예측하였고 우리 나라에서도 이미 많은 종류의 생물이 멸종되었다고 한다. 그리고 국제자연 보호연합에서의 분석에 의하면 지구상의 멸종 위기에 있는 동물의 96%가 인위적인 원인으로 분석하고 있다.

우리 나라에서도 댐 건설이나 산림 채벌, 또는 도로건설에 의해서 서식처를 잃거나 밀렵꾼들에 의하여 또는 열차나 자동차에 의한 상해, 또는 시종 질병이나 기생충 등의 질병에 의한 감소,

야생동물의 생태는 환경 열악치를 나타내는 지표가 되는 동시에 수의학적으로는 야생동물의 상해 병에 대한 치료나 야생동물의학은 중요한 과제가 되며 열대어나 수생동물에 대한 수의학 분야에 적극적인 대응도 우리의 절박한 과제이다.

7) 수의공중위생학

우리 나라에서는 사회 구성요건이 현저하게 변화가 올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인적 물적인 국제화가 높아져 이들에 의해서 우리 나라는 축산물이나 식품의 약품 또는 중금속, 환경 홀몬(다이옥신 등)의 잔류 등에 대하여서도 그의 안전성을 확보하지 않으면 안될 상태이나 교육이나 현장에서 만족할만한 여건이 마련되고 있지 않는 상태이다. 또 수의공중위생에서 인간의 영양 원으로서 안전하고 양질의 동물성 단백질뿐만 아니라 다른 식품에 대하여서도 생산과정부터 식탁까지의 위생관리가 중요하다. 특히 생산지에 있어서 가축위생 및 식품의 관리에는 국제적인 시야와 이에 대응하는 기술이 요구된다. 또 사회구성이 복잡해짐으로서 인간의 사회적 활동도 다양화되므로 환경위생도 수의학에 부과되는 큰 과제가 되고 있으며 이 분야에서 수의사의 역할이 크게 눈에 띄고 있다.

예를 들면 축산폐기물의 처리 기술을 활용한 생활폐기물의 처리문제, 이들의 처리에 의하여 일어나는 이차적 공해(환경호르몬) 문제등에 대처하기 위한 광범위한 학술과 행정에

필요한 수의 교육의 새로운 접근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8) 실험동물 등

그 동안 소외되어 왔던 실험동물의 생산과 관리 및 실험동물을 이용한 각종 실험 실시방법 등에 대하여도 심도 있는 교육으로 이에 대한 새로운 직역의 확충이 가능한 유망한 분야이다. 그 이외 국제적 안목으로 보아 수의직업의 다양화 추세에 따른 기초 및 응용수의학의 교육의 보강이 요구되고 있다.

9) 수의법규 및 경영, 경제 분야

현재까지는 과거 선배 수의사들의 배려에 의해서 수립한 수의제도에 의존하여 왔으나 고도산업사회 시대에 수의 정책(제도)이나 경영경제학 접목 없이는 수의산업을 발전시키기에 한계가 있다. 앞으로 행정학, 경영 경제학, 사회학 분야와 연계하여 수의산업의 새로운 도전을 위한 이 분야의 마인드를 익힌 수의사 배양에도 배려가 있어야 할 것이다.

8. 교육개혁 목표와 실천 방안

가. 목표

- 1) 한국수의학 교육의 개혁을 통해 세계수의사회(EVA)를 비롯해서 구미지역에서 설정한 교육기준에 접근하는 제도로 상향조정한다.

- 2) 교육내용, 강좌 수, 시설등을 충실하게 함으로서 임상교육을 현 수준보다 강화하는 한편 기초수의학은 임상을 이해하기 위한 교육으로 전환하여 의약품의 개발(인체용, 동물용, 수산용)과 식품산업 및 생물산업 분야에 진출할 수의사 기초교육의 충실화를 도모한다.

- 3) 수의사의 다양한 직업에 대비한 양질의 지적전문 수의사를 양성 배출하여 축산산업 및 소동물산업을 선도적으로 이끌어 가는 한편 광범위한 수의공중위생 향상에 실질적으로 기여하여 사회나 국가에서 맡겨진 소임을 다하여 사회에서 존경받는 새로운 수의사상(像)을 정립한다.

- 4) 국제적인 교역의 확대에 따른 관련 분야에서 대응하는 능력을 높여 국내산업보호는 물론 한 걸음 더 나아가 국내산업을 국제산업으로 육성한다.

- 5) 동물애호 정신의 고양과 고도산업화 정보화 사회로의 여건 변화로 황폐화된 사회상과 인간상을 태초로부터 현재까지 오염되지 않고 유지되어온 동물의 세계와 접함으로써 본래의 선한 인간성으로 복원하고 동물을 개재한 치료법(animal associated therapy)의 개발보급, 수의분야의 세계화에 발맞추어 국제수준화와 균질화를 목표로 한다.

나. 방침

- 1) 한국수의학 교육개혁 방안의 수립과 실천을 위해 범 수의분야의 인사들로 구성 하는



수의학교육개혁 실천운동본부를 대한수의사회에 설치한다.

- 2) 실천운동본부에는 기획부서와 수의학교육 기준위원회와 평가위원회 및 품질관리위원회 등을 두고 교육개혁 방안을 수립하고 국제적 기준을 감안하여 교육기준서를 작성하고 그 기준에 따라 각 대학별로 자체평가를 거쳐 외부의 객관적인 평가를 받게 하는 한편 정부와 교육개혁을 우리들이 주체가 되어 성취할 수 있도록 한국수의학교육협의회와 협력하여 추진한다.
- 3) 수의학교육의 지속적인 개혁과 추진을 위해 수의교육의 사찰을 통해서 교육 품질 관리 제도를 도입 운영한다.

9. 맺는 말

우리나라 수의학교육 개혁을 위해 그 동안 당사자인 전국수의학교수협의회를 비롯해서 전국수의과대학장협의회에서는 국내의 수의 분야를 비롯해서 재미한인수의사회에 이르기 까지 깊은관심 속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숙원이었던 교육연한은 6년으로 연장되었으나 우리들이 목표로 한 현시대에 걸맞는 지적 전문수의사의 육성을 위한 핵심이 되는 부분에는 전혀 접근을 하지 못한 채 많은 시간만 허비한 것 같아 안타깝다. 우리 민족이 총론에서는 합의가 잘 이루어지나 각론에서는 반대한다는 것을 또 한번 경험하게 되어 뒤가 개운치 않다. 그동안 수차에 걸친 심포지엄이나 협의회나 토론회 또는 글을 통해서 좋은 제안도 많았다.

그러나 합의점에 이르지 못한 것은 단 한가지의 이유이다. 내심은 이렇게되어서는 안 된다 하면서도 과거의 쓰라린 고통을 상기한 나머지 동료 교수들간에 의를 상하는 일이 일어나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교육분야에 문외한인 나에게 그 악역을 맡긴 것으로 안다. 따라서 필자는 우리 나라 수의술과 교육의 기원부터 시작해서 서론이 길었다. 그러나 우리 나라 수의학교육개혁을 위해서 그렇게도 진통이 있었음을 후세에 남기는 것으로 족하다. 이제 우리는 교육연한은 6년으로 정하였다. 그러나 푸른 꿈을 안고 수의사의 미래상을 그리며 전국에서 입학한 우수한 인재들을 모아놓고 그럭저럭 6년 후엔 국제적으로 인정하는 DVM의 호칭을 그들에게 수여될 것인데 과연 축산물의 생산 현장과 귀중한 식품생산의 검사원 그리고 자식처럼 사랑하는 반려동물의 생명을 맡을 거룩한 위치에 세우기에 한 점의 부끄러움이 없겠는지 한번 생각해 볼 일이다. 앞으로 무한의 경쟁은 국제관계 뿐만 아니다. 이는 국내에서도 관련 분야에서 무한 도전이 있음을 우리는 간파해야 한다. 예를 들면 축산 관련학과 식품 관련, 환경, 보건과 위생, 수산 관련학과, 생명과학 관련 분야, 제약 관련학과와도 무한한 경쟁을 해야하는 엄연한 사실을 겸허하게 받아 드려야 한다. 옛말에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고 하였다. 우리들의 교육개혁의 목표도 분명하고 그 또한 진리임을 누구도 부정하지 못한다. 뿐만 아니라 우리 수의분야 나아가서는 축산 산업 관련분야와 수의관련 모든 분야가 공멸할 것이냐 공생의 번영의 길로 갈 것인가

수의학과 교수들의 선택에 달려있다. 앞에서 국제적으로 채택된 수의학교육의 기준을 살펴보았다. 우리와 비슷한 처지에 있는 일본의 경우도 이미 수의학교육 기준을 마련하고 교육개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필자의 40년간의 연구공직에서 터득한 것은 매사에는 기회가 있다. 우리는 몇 차례의 기회를 놓쳤다. 지금 정부는 개혁을 위한 구조조정으로 큰 홍역을 치르고 있으며 우리 수의 분야도 이미 검역기관과 연구기관이 하나로 통합되었다. 다행스럽게도 우리 나라 10개 수의학과를 설치한 대학은 건국대를 제외한 9개 대학이 국립대학이다. 지금의 정서상으로 보아 선진국의 수의학교육기준으로 9개 국립대학을 육성을

위한 국제 기준으로의 교수의 증원이나 시설 그리고 예산을 증액한다는 것은 현 실정으로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으로 국립대학 수의학과 교수가 힘을 합하여 대학을 적정한 수준에서 통합하고 교수 T/O와 예산을 합하여 운영토록 관련단체와 함께 건의한다면 정부에서도 거절할 명분이 없다. 대학의 수와 통합의 방법은 앞에서 제시한 가칭 “수의학교육개혁 실천운동본부”를 구성하여 모든 전권을 위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제 개인이나 지역의 장벽을 뛰어 넘어 새 천년의 수의분야의 미래를 위해 지혜로운 선택으로 역사에 오점을 남기지 않도록 용기를 내어 수의학교육제도 개혁에 모두 동참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농경애니텍 수의학 신간안내

New Vet Books!!

농경애니텍 TEL. 02) 3461-0295

- Saunder's Manual of small animal practice 2nd/2000/Birchard
- Atlas of dog&cat cytology/2000/Raskin
- Fluid Therapy in small animal practice 23rd/2nd/2000/Dibatola
- Diagnostie Radiology&ultrasonography of dog&cat 3rd/2000/kelay
- H/B of Vet Procedures&Emergency Treatmeat 7th/2000/Bistner
- Kirk's current Vet Therapy 13ed/2000/Bonagura
- T/B of Vet internal medicine 5ed/2000/Ettinger
- Small anamal Ear diseases/2000/Gotthelf
- Vet Dental Technigues/2000/Holmstrom
- Vet ophthalmology 3ed/99/Gelatt
- Comprehensive Vet dictionary/99/Blood
- Canine&Feline cardiology/99/Phillip
- Atlas of Small anamal Reconstructive Surgery/Michael/99
- Diseases of Swine/99/
- Color atlas of Small animal dermatology/99/Wilkinson
- Fish diseases and disorders/99/kwoo
- Zoo&wild animal medicine 4ed/99/Fowler
- Clinical Vet microbiology/99/Quinn
- Diagnostie Cytology&Hematology of dog.cat/99/Cowell
- Color Atlas of Vet anatomy I Dog&Cat/99/Done
- Color Atlas of Vet anatomy I Ruminants/99/Ashdwn